



# 해외양계뉴스

## 헝가리

### 동구시장 변화로 수출에 큰 타격

'90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4~5위의 양계산물 생산국으로 부상했던 헝가리는 동구권의 민주화 등 기존 무역활동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2년전에 비해 1/3정도의 생산감소 현상이 발생하여 양계산업 뿐 아닌 사료작물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헝가리는 '90년 당시 13만톤의 가금육을 구소련에 수출해왔는데 동구권 수출의 74%를 맡아온 한 수출업체는 동구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대비책을 마련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닭고기수출의 약 2/3를 동구시장에 의존해왔는데 수출부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되어 서구시장 개척을 비롯한 양계업의 체제정비에 부심하고 있다.

## 중국

### 양계산업 투자활발

중국의 양계산업은 국민의 소비수준이 증가되고 각종 기술이 보급되면서 최근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8천여개에 달하는 양계장이 현대식으로 신축되었으며 연간 각각 1백만수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계장만도 67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92년 중국내에서 사육되어지는 가금숫자를 보면 닭 23억5천수, 오리 3억8천9백수, 거위 1억2천9백수를 포함하여 총 28억7천수로 조사되었다.

## 뉴질랜드

### 사료원료 자체 수급조절에 차질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3년동안 사료용 곡물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사료원료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자체공급이 가능했던 사료산업이 변화를 맞게 되면서 전문적인 양계 사료회사인 PCL사는 호주로부터 밀을 수입해 펠릿용사료를 제조, 공급하게 되었다.

호주의 밀 수출관계자들은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양계사료를 생산하는 뉴질랜드 사료업체에 밀을 사용하여 펠릿사료를 생산할 경우 살모넬라의 오염을 방지하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잇점을 들어 수출확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인도

### 채란계 산업 급성장

인도의 채란산업은 '92년 현재 연간 250억 개의 계란을 생산하면서 세계에서 4번째의 계란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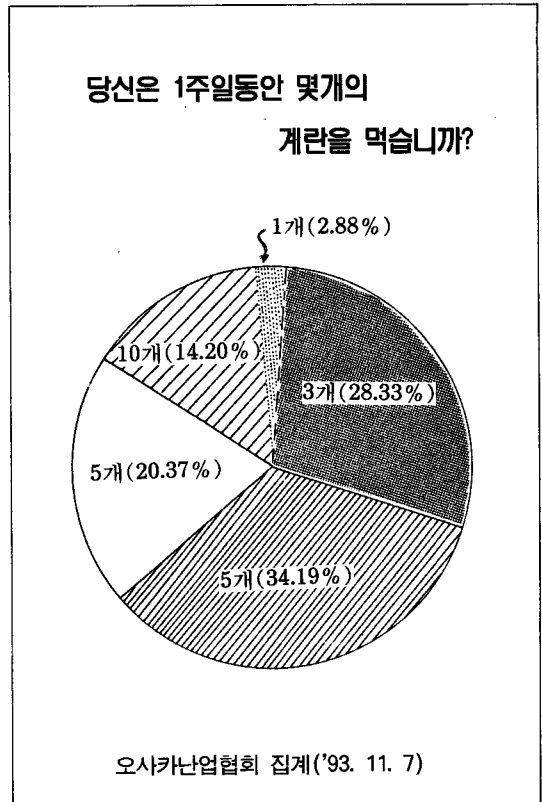
인도는 최근 연간 10~12%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 10년동안 타농업의 성장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6%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해 왔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88년 17개에서 '93년 30개로 소비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나라별 평균 소비량 60개와 306개를 소비하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도정부에서는 소비량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채란산업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 1인당 일주일에 보통 5개의 계란 섭취



오사카난업협회는 최근 계란의 위생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일본내 1,2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93.11.7)내용을 발표하였다.

질문으로는 1주일동안 몇개의 계란을 먹습니까?에 1주에 1개는 2.88%, 3개는 28.33%, 5개는 34.19%, 7개는 20.37%, 10개 이상은 14.20%로 나타나 2일에 최소 1개 이상을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